

광주교육청, 연말까지 1대1 맞춤형 진로·진학상담

주 4회 진로·대입 상담 진행 진학부장 등 전문가로 구성

광주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가 1일부터 초·5~6학년, 중·고등학생, 학부모 대상 1대1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을 본격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담은 1대1로 진행되며 진로 상담과 대입 상담으로 나뉜다. 진로 상담은 1일~12월13일 매주 월~목 주 4회, 회당 120분 진행된다. 대입 상담은 이달부터 지정된 토요일 4개 부스에서 8회 실시된다. 1명당 40분 상담이 이뤄지며 1대1 맞춤형 대면 상담이 진행된다. 시교육청은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현지 진로부장, 진

학부장, 광주교대 상담위원 등 전문가 중심으로 상담위원을 위촉했다.

상담은 매달 첫 주 월요일 오전10시부터 광주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jinhak.gen.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6월 상담은 어린이날 대체 휴무가 있어 5월7일 오전10시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정선 교육감은 “꿈을 가진 학생들의 꿈을 소중히 여기는 진로 상담을 펼치겠다”며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취업 또는 진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작년에 이어 진로진학과 내 광주진로진학지원센터를 운영해 1대1 맞춤형 진로·진학 및 대입 상담을 강

화한다는 방침이다. 대면상담은 물론 학생들의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을 위해 비대면 상담도 함께 운영한다. ‘빛고를 꿈트리 진로 진학 상담(<https://band.us/@kwangjuipsi>)’을 확대해 24시간 온라인으로 상담을 운영하고 학부모 대상 광주 진학 아카데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혜인 기자

광주 32개 →45개교 늘봄학교 우선시행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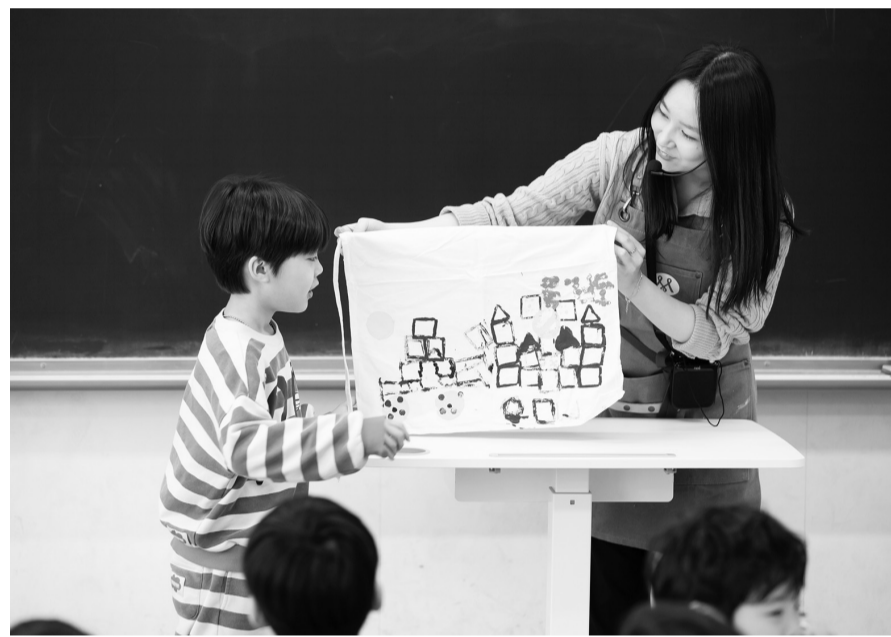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1학기 우선 시행 늘봄학교를 32개교에서 45개교로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2학기 전면시행을 대비해 안정적인 늘봄학교 운영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시행 학교를 확대했다.

추가 운영 13개교에는 늘봄지원센터를 통해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할 인력과 초1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를 채용해 배치될 계획이다. 운영에 필요한 환경개선비, 재료비, 운영비 등도 별도 지원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교육청과 학부모간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1학기 우선시행 늘봄학교의 학부모 27명으로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했다. 위촉식과 사전 교육 실시 후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현장 목소리와 소통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1학기 우선시행 늘봄학교 확대 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우수사례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 2학기 전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달 15일 광주 광산구 선창초등학교가 늘봄교실로 운영하는 미술 공예 프로그램인 ‘두두두’가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 돌봄교실과 선택형 프로그램을 포함한 늘봄학교 1학년생 참여율은 90%다. 현재 운영 중인 늘봄학교에

서는 동화구연, 스포츠 놀이 등 59개 초 1 맞춤형 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김혜인 기자

전남교육청, 학습부진 원인·수준 진단 프로그램 운영

충남도교육청과 온시스템 협약

전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과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2일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을 보장하고, 학습 결손을 해결하기 위한 ‘온시스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기초학력 진단 보장 및 관련 자료 공유 △기초학력 보장·한글 해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협력 △‘온시스템’ 관련 자료 제공 및 공동연구 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류 및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온시스템은 디지털 기반으로 학생들의 학습부진 원인과 학습 수준을 진단해 유형별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맞춤형 보정 자료를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한글 해독을 지원하는 ‘온한글’,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온재움’, 문해력 향상을 지원하는 ‘온생각’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13일 사내 연수를 실시한 결과 기초학력전담교사들은 “보정 지도에 대한 이력 관리가 체계적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보정 문항이 다양하게 제공된다. 다문



전남도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이 2일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온시스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화 비율이 높은 전남 특성에 걸맞은 프로그램 도입이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김대중 도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 개인의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공교육의 기본 책무이기에 충남도교육청의 온시스템을 상호 공유하는 의미가 크다”며 “기초학력 책임 보장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혜인 기자

광주동부교육청, 제주 4·3 이야기 교류 학습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2일 광주-제주 지역교류학습을 신청한 초등 30학급 대상으로 ‘평화·인권 사람책 수업-제주 4·3 이야기’를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2일 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평화·인권 사람책 수업’은 지역교류학습을 희망

한 광주와 제주의 결연 학급이 함께 온라인에서 모여 듣는 수업이다. 학생들은 전문가 선생님께 △제주 4·3이야기 △4·19 혁명 △5·18민주화운동 등 광주와 제주의 역사적 사건을 주제로 한 세 차례 수업을 듣게 된다. 이를 통해 서로가 사는 지

역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이해하고 민주·인권·평화의 감수성을 키운다.

첫 시간 제주 4·3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강사는 제주 4·3 전문가인 제주 서귀포여중 한상희 교감을 초빙했다. 한 교감은 그동안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최근 ‘4·3이 나에게 건넨 말’이란 저서를 집필한 바 있다.

한 교감은 본인의 가족사와 함께 4·3의 역사를 전달했다. 노인과 아이의 희생이 많았던 만큼 학생들이 약자를 지켜주는 태도를 키워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픈 역사 속에서 정의로운 판단을 내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아이들이 ‘선의 시민성’을 갖는 용기 있는 시민이 되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정성숙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광주

와 제주의 학생들이 제주 4·3 역사를 함께 배우고 역사의 아픔에 공감하기를 바란다”며 “평화와 인권을 수호하는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 자라났으면 한다”고 밝혔다.

‘평화·인권 사람책 수업’은 오는 18일 4·19혁명, 5월8일에는 5·18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펼쳐진다.

김혜인 기자

그린알로에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